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지원망 특성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정화* · 한경혜** · 박공주* · 이한기*

*농촌생활연구소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The Effects of the Social Support Network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Lee, Jeong-Hwa* · Han, Gyoung-Hae** · Park, Gong-Ju* · Lee, Han-Ki*

*National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A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rural area is growing rapidly, the quality of life of the rural elderly is becoming a major concern. According to Rowe and Kahn(1997), active and productive engagement in society is a central component of successful aging. Yet, the effect of various social support network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is not well know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mpirically examine the connection between social support network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For this purpose, community welfare specialists gathered data from 1033 rural elderly in 32 village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ross tables,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s 10.0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majority of rural elderly have social support networks composed of more than one person and the mean number of their social support network was ten persons. The elderly who keep frequent contact with many adult children and friend/neighbor are happier than the elderly who keep contact with fewer number of children and friends. The size of the network of relatives significantly affects the level of loneliness of the elder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rural elderly is discussed.

Key words : Psychological well-being, Rural elderly, Social support network

1. 서론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비율이 2000년 현재 14.7%이며 농가로 가면 2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비율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농촌의 면 단위 이하 소규모 마을의 노인인구 비율은 이런 통계치 보다도 훨씬 높아 60~70%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농촌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농촌 지역사회의 생산성저하와

부양부담 증가 등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농업의 활로가 밝지 않은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농촌노인들은 노동 투하량에 비해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농촌노인의 복지실태를 조사한 연구보고서(농림부, 2002)는 많은 농촌노인들이 경제적, 의료적, 사회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도시노인에 비하여 삶의 질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농촌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이러한 우려와 함께 농촌노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노인의 삶에 있어 농촌 지역의 환경적 불리함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온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이라는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삶의 장으로서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농촌지

Corresponding author : Lee, Jeong-Hwa
Tel : 031-299-0492
E-mail : sparrow@rda.go.kr

역은 노인취업이 첨예한 이슈가 되는 도시노인과는 달리 정년의 개념없이 오랫동안,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농업이라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에 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에 오랜 유대 관계망이 잘 형성되어 있고 협동하고 상부상조하는 독특한 공동체 문화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문화는 농촌노인들의 삶에 있어 도시노인들이 갖지 못하는 긍정적 삶의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농촌 공동체 문화의 예로, 충북 영동군 양강면 지촌리 마을주민들이 홀로살던 팔순 할머니를 보살펴오다가 최근 돌아가시자 자녀들을 대신해서 공동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보도(농민신문, 웅달샘, 03.3.21)나 군단위의 지역사회단체에서 보건소나 군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도우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을 들 수 있다(홍성군, '복지도우미' 사업, 고흥군의 '나홀로 돕기 자율봉사단' 관련 기사, 농민신문 03.3.5, 03.14일자).

특히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스스로 사회적 연계망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풍부한 사회적 관계망은 농촌 지역사회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농촌노인들이 마을의 노인정, 경로당을 중심으로 거의 매일 만남을 갖고 있고, 농촌노인들의 69.2%가 주위에 매일 만나는 친한 친구나 이웃을 둔 것으로 나타난다(한경혜, 1996).

Rowe와 Kahn(1997)은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를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 정신건강, 사회적인 건강의 통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때 사회적 건강은 곧,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특징으로 하는(이한기, 1996) 농촌지역사회 환경은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바람직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같은 지역에 오래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생애과정을, 또 그 과정의 의미들과 연관된 풍부한 상징들을 같이 나누고 지켜본 친족, 친구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왕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은 농촌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가질 수 있는 매우 큰 특권일 수 있다.

사회적 지원망은 개인에게 지지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그동안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 그동안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해 왔고(Mullins와 Dugan, 1990, Litwak와 Kullis, 1987, Seeman와 Berkman, 1988) 사회적 지원, 사회적 참여와 심리적 복지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는 연구결과들(Lowenthal와 Haven, 1968, Beck와 Page, 1988, Rebecca 등, 2002)이 축적되어왔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망이 제공하는 지지는 개인의 우울감이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키는 등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나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간접적 경로를 통하여 개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유조안, 2000).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도시노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원망의 효과를 연구해왔다.(김정석과 김익기, 2000, 최정아와 서병숙, 1992).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을 뿐더러 이 연구들도 사회적 지원망 중 주로 성인자녀를 중심으로 한 세대 관계에 관한 연구이거나 단독가구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을 뿐이다(이만아, 2000, 이형실, 1999, 한경혜, 1996, 한경혜와 홍진국, 2000). 따라서 농촌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원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원망이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망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농촌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가 노인의 삶의 질에 가지는 긍정적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업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 1월~2월 사이에 수집한 농촌 노인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는 농촌진흥청 경영관실의 협조를 얻어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 농촌지역에서 각각 평야, 산간, 중산간, 도시근교의 성격을 가진 4개 시군을 선정 후 이들 총 32개 시·군에서 가장 지대특성이 뚜렷한 1마을씩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각 농업기술센터의 생활지도사들이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노인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1600부를 배포하여 1226부가 회수되었고 노인연령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응답자나 불성실 기재

된 조사지를 제외하고 1033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조사는 농촌 노인들의 특성,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발된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농촌 노인만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대표성을 가진 표집과정을 거쳐 조사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직까지 농촌노인에 대한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조사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본 자료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기존의 조사들이 분석단위의 혼용으로 많은 잘못된 결과 해석이 있었던 반면, 본 조사는 노인단독가구, 자녀동거 노인과 같이 가구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개별질문을 포함함으로써, 독거노인가구가 증가하는 농촌사회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사회적 지원망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지원망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지원망을 비동거자녀, 친척, 친구로 구분하여 각 지원망의 크기(수)와 거주거리, 방문빈도, 전화빈도를 측정하였다.

나.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감은 '행복감'과 '고독감'으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영역으로는 연구자에 따라 정서적 복지감, 만족감, 생의 의미로 나누기도 하고(Umber-son과 Gove, 1989), 행복감과 우울감으로 보기도 하며 보다 다차원적인 개념을 적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문 해독율이 낮고 심리적 측면에 대해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들

에게 가장 익숙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측면인 행복감은 '귀하와 연세가 비슷한 분들과 비교해 볼 때, 귀하는 더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는 단일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측면인 '고독감'은 '요즈음 생활에서 외롭다고 느끼시는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라는 단일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고독감의 경우, 행복감 보다 농촌노인에게 덜 익숙한 개념으로 노인들이 세분하여 대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5점 척도가 아닌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고독감 역시, 점수가 높을 수록 고독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0.0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회적 지원망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함께 행복감과 고독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대상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을 보면 여자노인과

표 1.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빈도(%)		
구 분		계	구 분		계
성별	남	471(45.6)	배우자유무	없음	184(18.1)
	여	561(54.4)		있음	834(81.9)
주관적 경제수준	매우 나쁘다	88(8.6)	거주형태	독거	144(13.9)
	조금 나쁜 편이다	178(17.3)		노부부	427(41.3)
	보통이다	476(46.3)	자녀동거	462(44.7)	
	조금 좋은 편이다	240(23.3)	연령	64세 이하	291(28.2)
매우 좋은 편이다	47(4.6)	65세-69세		281(27.2)	
		70세-74세		229(22.2)	
교육정도	무학	502(49.0)	75세 이상	232(22.5)	
	서당	48(4.7)	건강상태	대부분 누워지냄	26(2.5)
	초등학교졸업	374(36.5)		가끔 누워지냄	273(26.6)
	중학교졸업	53(5.2)		별로 아프지 않음	400(38.9)
	고등학교졸업	39(3.8)		건강함	329(32.0)
대학교 졸업이상	8(.8)				
계		1033(100.0)	계		1033(100.0)

* 무응답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변수별 사례수는 얼마간 차이가 있음.

남자노인이 비교적 고른 가운데 여자노인이 좀 더 많이 표집되었다. 연령은 75세 미만의 젊은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었고, 교육정도는 무학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49%)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별로 아프지 않다', '건강하다'는 응답이 약 71% 정도였고 대부분 누워지내는 와상노인은 2.5%로서 건강한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약 4/5의 노인들이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여 유배우율이 약 82%에 이르고 있다. 거주유형은 노인혼자, 노부부만 사는 단독가구 노인가족이 55.2%이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은 약45%정도로 나타났다. 농촌노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보통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인 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망

농촌노인들의 사회적 지원망은 친밀하게 지내는 비동거 자녀, 친척, 친구(이웃)로 구분하여 각 지원망별 크기, 접촉빈도, 거주거리를 살펴보았다.

가.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

먼저, 농촌노인들 중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생활하는 비동거 자녀가 없는 비율은 약 12%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1~2명의 자녀와 친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 약 74%의 농촌노인들은 1명 이상의 가까운 친척이 있었으며 1명 이상의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있는 노인은 약 92%에 이른다. 이는 거의 모든 농촌노인들이 가가

표 2.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 빈도(%)

구분	비동거자녀	친척	친구/이웃	총 지원망 수
0명	120(11.8)	263(25.6)	86(8.4)	3(0.3)
1명	275(27.0)	206(20.1)	98(9.6)	33(3.3)
2명	238(23.4)	209(20.4)	178(17.5)	48(4.8)
3명	127(12.5)	120(11.7)	163(16.0)	61(6.0)
4명	99(9.7)	50(4.9)	95(9.3)	101(10.0)
5명	89(8.7)	79(7.7)	123(12.1)	84(8.3)
6명	41(4.0)	12(1.2)	54(5.3)	72(7.1)
7명	21(2.1)	10(1.0)	21(2.1)	84(8.3)
8명	5(0.5)	11(1.1)	20(2.0)	70(6.9)
9명	0(0)	0(0)	3(0.3)	57(5.6)
10명	4(.4)	29(2.8)	98(9.6)	61(6.0)
11명-20명		22(2.2)	57(5.5)	247(24.5)
21명 이상		15(1.5)	24(2.2)	89(8.8)
Mean(SD)	2.4 (1.9)	2.92 (5.4)	5.49(8.0)	10.80(12.8)
계	1033(100.0)	1033(100.0)	1033(100.0)	1033(100.0)

이에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나 친척보다는 친구나 이웃의 지원망이 그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일상을 같이하는 시간이 많음에 따라 농촌노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농촌노인들의 총 지원망 수를 합해 보았을 때, 친밀한 지원망이 아무도 없다는 3명의 노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1명 이상의 친밀한 사회적 지원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 크기는 평균 1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이 그들의 사회적 구학적 특성별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성차를 보면, 친척의 수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친밀하게 지내는 지원망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부거제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거주형태별로는 모든 지원망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부동거 노인가족의 경우 각각의 지원망에서 모두 그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가장 적은 지원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립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서는 전반적으로 75세 이상 노인으로 갈수록 지원망의 크기가 작아졌는데 친척 수에서만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났다. 그리고 건강한 노인의 경우 건강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별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 M(SD)

구분	비동거자녀	친척	친구/이웃	
성	남	2.46(1.83)	3.30(5.97)	5.91(9.09)
	여	2.35(1.89)	2.61(4.78)	5.14(6.89)
t	.86	2.07*	1.55	
거주형태	독거	1.91(1.87) b	1.96(3.30) b	4.60(4.30) b
	부부동거	2.57(1.93) a	3.45(6.71) a	6.37(10.66) a
	자녀동거	2.40(1.77) a	2.73(4.34) ab	4.94(5.48) b
x ²	6.80**	4.71**	4.59*	
연령	64세 이하	2.52(1.85)	3.18(5.20) a	5.60(9.31)
	65세-69세	2.48(1.90)	3.20(6.11) a	6.32(9.49)
	70세-74세	2.39(1.94)	3.09(6.14) a	5.26(5.98)
	75세 이상	2.16(1.74)	2.09(3.32) b	4.46(5.36)
x ²	1.82	2.41*	2.14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2.0(1.80)	1.80(1.55)	2.84(2.56) b
	보통임	2.27(1.98)	2.93(6.32)	5.39(8.62) ab
	건강한 편임	2.48(1.90)	2.69(4.71)	4.92(5.47) ab
	건강함	2.25(1.72)	3.27(5.45)	6.40(9.94) a
x ²	1.13	1.08	3.02*	
계	2.40(1.86)	2.92(5.36)	5.49(7.97)	

* p < .05 ** P < .01 *** P < .001
a, ab, b : 사후검증(Duncan test) 결과 나타난 집단간 차이

나. 사회적 지원망과의 거주거리

농촌노인들은 비동거자녀와 가장 먼 거리에, 친구(이웃)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서 생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상에서의 도구적 지원은 멀리 사는 자녀보다는 근거리의 친구(이웃)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친척의 경우 과반수가, 친구(이웃)의 경우 88%가 같은 동네에 살면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거리는 다음에 나타나는 사회적 지원망과의 접촉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회적 지원망과의 접촉빈도

농촌노인들은 비동거 자녀와는 ‘한달에 한두번’, ‘1년에 몇번’ 만나는 빈도가 가장 많지만 전화는 그보다 더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척이나 친구(이웃)와는 ‘거의 매일’ 만나고 ‘거의 매일’ 전화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리적 근접성이 이러한 농촌노인과 사회적 지원망과의 접촉빈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지역의 친척, 친구와의 사회적 지원망을 살펴본 최정아와 서병숙(1992)의 연구에서 친척과는 1년에 두 세번 만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친구나 이웃과는 거의 매일 만난다는 비율이 50% 내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농촌지역에서

표 4. 사회적 지원망과의 거주거리 빈도(%)

구분	비동거자녀	친척	친구
같은 동네	65(6.9)	523(56.6)	864(88.2)
같은 읍, 면	84(8.9)	344(37.2)	58(5.9)
같은 군	169(17.8)	57(6.2)	27(2.8)
같은 도	300(31.7)	0(0.0)	10(1.0)
기타 다른 지역	329(34.7)		21(2.1)
계	47(100.0)	924(100.0)	980(100.0)

표 5. 사회적 지원망과의 접촉빈도 빈도(%)

구분	비동거자녀	친척	친구	
방문 빈도	거의 매일	70(7.4)	421(54.5)	673(68.7)
	1주에 1회이상	187(19.8)	105(13.6)	224(22.9)
	한달에 한두번	360(38.1)	104(13.5)	56(5.7)
	1년에 몇번	321(33.9)	78(10.1)	25(2.6)
	거의 만나지않음	8(0.8)	63(8.2)	0
전화 빈도	거의 매일	140(15.5)	322(41.4)	264(27.0)
	1주에 1회이상	371(39.4)	147(18.9)	279(28.5)
	한달에 한두번	337(35.8)	158(20.3)	144(14.7)
	1년에 몇번	68(7.2)	141(18.1)	55(5.6)
	거의 하지않음	20(2.1)	10(1.3)	237(24.2)
계	946(100.0)	778(100.0)	979(100.0)	

친척이나 친구, 이웃과의 만남이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빈번함을 알 수 있다.

3.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망과 심리적 복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농촌노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고독감으로 측정하였다. 농촌노인들의 행복감은 평균 3.21(SD:.88, 점수범위1-5점)로, 전반적으로 중간이상의 긍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노인들이 지각하는 고독감은 평균 2.59(SD:.86, 점수범위 1~4점)로 나타나 농촌노인들은 고독감도 중간 이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촌노인들이 보통수준 이상의 행복감을 느끼는 동시에 보통수준 이상의 고독감을 느끼는 것으로 행복감과 고독감이 단일차원의 감정이 아니어서 두가지 심리적 복지상태가 동시에 높을 수도, 동시에 낮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농촌노인들의 심리적 복지에 사회적 지원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행복감과 고독감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을 수행하였고(모델 1), 모델 II에서는 모델 I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와 함께 독립변수에 사회적 지원망 변수를 추가하였다.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설명력이 모델 1에 비하여 모델2에서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살펴봄으로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고려된 후에도 사회적 지원망 변수가 모델에 추가됨으로서 심리적 복지감 설명에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하는가 파악하기 위하여 이런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간 상관관계를 보았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가 .60수준으로 나타나 변수간 다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에서 농촌노인의 기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농촌노인들의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거주유형, 교육수준 순으로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농촌노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독거노인 가구보다는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 가구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5%였다.

고독감의 경우에는 경제적 수준, 거주유형, 건강상태,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동거나 자녀동거 노인보다는 독거노인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고독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표 6.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행복감				고독감			
			모델 I		모델 II		모델 I		모델 II	
	b	β	b	β	b	β	b	β		
일반적 특성										
연령	.00	.01	.00	.01	.01	.07*	.01	.07*		
교육수준	.05	.07*	.03	.03	-.00	-.00	.01	.01		
성별(남성=0)	.09	.05	.08	.04	-.02	-.01	-.02	-.01		
종교	.06	.03	.05	.03	.07	.04	.07	.04		
지각된 건강상태	.16	.14***	.16	.14***	-.13	-.13***	-.13	-.13***		
주관적 경제수준	.47	.49***	.46	.48***	-.22	-.25***	-.21	-.23***		
노인부부가구 ^a	.21	.11**	.18	.09*	-.54	-.31***	-.51	-.29***		
자녀동거가구 ^a	.22	.12**	.21	.11**	-.37	-.21***	-.36	-.21***		
사회적 지원망										
비동거 자녀수			.06	.12***			-.02	-.04		
가까운 친척수			.00	.02			-.03	-.16***		
친구/이웃 수			.01	.07*			.00	.02		
상수	.92		.84		3.36		3.34			
R ²	.35***		.37***		.17***		.20***			
R ² change			.02***				.03***			

* ^a 거주유형 가변수(독거노인 가구가 제외됨)

* p < .05 ** P < .01 *** P < .001

리고 이들 네 변수의 설명력은 17%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를 나타내는 행복감과 고독감에서 공히 노인의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가족 구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 모델 II에서는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델 I에 비하여 R²이 각각 2%, 3% 증가하였으며 그 변화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수를 살펴보면, 행복감에는 비동거 자녀수와 친구(이웃)수가, 고독감에는 친척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동거 자녀가 많고 친구나 이웃의 수가 많을수록 농촌노인의 행복감은 증가하는 반면, 가까운 친척이 주변에 많을수록 고독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농촌노인의 행복감과 고독감 지각에 각각의 사회적 지원망이 상이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노년기에 유지되는 사회적 지원망이 농촌노인들의 심리적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가까운 유대를 맺고 있는 친척의 수가 농촌노인의 외로움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친구/이웃의 수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녀를 도시로 보내고 노인단독가구 형태로 사는 농촌노인들에게 자녀 이외의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유대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의 사회적 지원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망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환경으로서 농촌이라는 지역사회가 농촌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을 탐색해보았다.

연구결과, 농촌노인들은 거의 모두가 1명 이상의 사회적 지원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11명 정도의 사람들과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동거율이 낮고 비동거 자녀와 비교적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은 노인들은 도시노인에 비해 자녀보다는 친척이나 친구가 가장 자주 만나 빈번히 교류하는 지원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거나 농사일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일이 많고 이주가 잦지 않아 이웃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는 농촌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농촌사회에서는 아직도 집성촌이 유지되는 곳이 많아 도시지역보다 노인들이 친척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는 경향이 높다. 이렇듯 농촌노인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회적 관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은 농촌노인들의 행복감은 높게, 고독감은 낮게, 즉 심리적 복지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Cantor(1979)의 위계적 보상모델에 의하면 비공식 지원망의 기능에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부재할 때 친구나 이웃들의 비 혈연관계로 위계적인 대체가 보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이 연구결과는 자녀와의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반면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농촌상황에서 친구나 이웃 등이 과거 자녀나 가까운 친척의 지원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여 Cantor(1979)의 모델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혈연이 부재할 때 비혈연,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대체가 일어나지 않고 지지의 부재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결과(황미영, 1999)와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노인들이 갖고 있는, 매우 일상적이고 자생적인 그리고 오랜시간을 같이 한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지원망은 농촌 지역사회가 갖는 바람직한 특성임과 동시에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나 지역사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촌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하고, 사회활동에의 참여가 증가할 때 이들이 갖는 사회적 지원망이 더 커질 수 있고, 사회적 지원망과의 상호작용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집에서 소일하는' 농촌노인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여성노인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을 볼 때(이정화와 한경혜, 2003), 특히 농촌여성노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고립을 막을 수 있는 공동 여가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자원봉사활동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 또한 더 적극적으로 마련되어 다양한 공동활동, 여가활동을 통하여 행복감은 높게, 고독감은 해소되는, 그래서 결국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2003년 한국농촌계획학회 춘계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

참고문헌

1. 김정석, 김익기, 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 155-168
2. 농림부, 2002,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3. 유조안, 2000, 저소득층 편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4. 이민아, 2000, 우리나라 노인의 세대간 상호지원과 거주형태, 한국노년학 20(3) : 129-142
5. 이정화, 한경혜, 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1) : 209-238
6. 이한기, 1996, 농촌노인관련 문제의 분석과 기초전략 탐색연구, 『농촌노인의 생활향상을 위한 연구』, 농촌진흥청 : 3-81
7. 이형실, 1999, 농촌 부부가구노인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 109-120
8. 최정아, 서병숙, 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 65-78
9. 한경혜, 1996,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 및 생활의 활력화 연구, 『농촌노인의 생활향상을 위한 연구』, 농촌진흥청 : 174-224
10. 한경혜, 1997, 농촌 단독가구노인의 자녀관계, 한국노년학 16(2) : 21-38
11. 한경혜, 홍진국, 2000,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 55-80
12. 황미영, 1999,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2) : 27-46
13. Beck, S. H. and J. W. Page, 1988, Involvement in activities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retired men. Activities, Adaptation, and aging 11(1) : 31-47
14. Cantor, M. H., 1979, Neighbors and Friends: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1 : 435-463
15. Litwak, E. and S. Kulis, 1987, Technology, proximity and measure of kin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 649-661
16. Lowenthal, M. F. and C. Haven, 1968, Interaction and adaptation: Intimacy as a critical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1) : 20-30
17. Mullins, L. C. and E. Dugan, 1990,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family and friendship relation on residents' loneliness in congregate housing, The Gerontologist 30 : 377-383
18. Rowe, J. W. and R. L. Kahn,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 433-440
19. Umberson, D. and W. R. Gove, 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 999-1012
20. Utz, R. L., D. Carr, R. N. Nesse, and C. B. Wortman, 2002, The effect of Widowhood on older adults' social participation: An Evaluation of Activity, Disengagement, and continuity Theories, The Gerontologist 42(4) : 522-533